

영광 맞춤형 '인구·출산정책' 통했다

인구 5만4천명 눈앞...전년 대비 출생아 102명 증가 전국 최고 출산장려·인구교실·청년 지원책 등 효과

영광군 인구가 다양한 '인구·출산정책' 추진에 힘입어 5만4,000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광군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5만 3,911명을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말 기준 결혼출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해 대비 결혼은 45명, 출생아 수는 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말까지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는 407명으로 전남 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증가율(0.28명 증가)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영광군은 올해 1

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광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통해 전입 장려금을 지난 7월부터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체결한 인구감소 극복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내고장, 내직



영광군이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으로 인구 5만4천명 회복을 앞두고 있다. /영광군 제공

장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청년드림업 321 프로젝트', '청년 취업활동 수단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취업자 주

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인구·출산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회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전체 주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희망의 징검다리' 2기 출범

광양제철소 특수아동 치유형 프로그램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광양시 중동 광산특수어린이집에서 특수장애 아동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부터 포스코1% 나눔재단 기탁금을 통해 특수장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음악·미술 치료, 숲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참가하는 90여명의 아이들이 신체에 성장하는데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장애 아동, 보호자와 함께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참여해 천연 염색, 숲 탐방 등

을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광산특수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의장, 황재우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김정수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해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 광양시 교육보육센터 보육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수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아이들이 신체에 성장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에 일원이자 더 나아가 기업시민으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7일 광양시 중동 광산특수어린이집에서 특수아동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서 운영중인 '통합의학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통합의학관은 병원·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보완의학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통합의학관' 인기

여성암·만성질환 상담·아로마테라피 등 다채

치유와 힐링의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서 운영중인 '통합의학관'이 인기몰이를 하며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람회장 주무대 옆에 위치한 통합의학관은 병원·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보완의학 진료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서울에서 처음 박람회에 참가했다. 여성암 시술 후 회복기 집중 관리와 중년 여성 갱년기 상담이 필요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부인중앙클리닉, 불임클리닉, 폐경 골

다공증 클리닉, 고위험임신클리닉, 약물상담 클리닉, 골반재건성형 클리닉, 암환자 생식력보존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은 만성질환 검사와 침·뜸 치료, 동신대한방병원은 만성 통증치료·중풍 관련 상담, 여전전남병원은 갑상샘암 검진, 정원요양병원은 극초단파·심부열 치료기로 물리치료 등을 해주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도 암환자 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새나래병원은 관절질환 진

료, 조선대는 테이핑요법, 남부대는 스트레칭 치료 및 디스크, 목과과학대와 서영대는 치아 관리, 순천제일대는 족부 검사, 신한대는 카이로프랙틱 체형교정, 태국 출산통근대학은 파킨슨병 관리, 초당대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탈모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의 꽃, 나무 등 식물의 향을 이용한 아로마 손마사지와 향기치료 상담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과 치유의 1번지 장흥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안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정근산 기자

순천 '꿈키움 인문학' 운영

자활참여자 대상 매월 1회

순천시는 최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1회 마음치유 행복교실이라는 주제로 '희망의 꿈키움 인문학'을 개최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매월 1회씩 책과 영화, 역사, 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마련해 순천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 속 활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인문학 강좌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기와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중심의 인문학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함평 양봉농업인 한마음대회

함평군은 최근 돌머리해수욕장에서 '2019함평군양봉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양봉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 비전 창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나운수 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지역농업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열린 본 행사는 우수 양봉인 시상, 경품추첨,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담양, 충장축제퍼레이드서 산타축제 홍보

담양군은 최근 광주 동구 '제16회 추석의 충장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해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3회 담양산타축제'를 홍보했다. 산타복장을 한 30명의 산타가 행진하

며 담양산타축제를 홍보했으며 관광객과 소통을 위한 축제 홍보물과 선물을 나눠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는 오는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조손 위기가정 밀반찬 지원

장흥군과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희망사다리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조손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및 조

손계정 아이들과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여협 11개 단체장은 결연된 24가구를 직접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흥·이옥현 기자



세계고흥향우회 고흥방문 행사

고흥군은 최근 3일간 세계고흥향우회 10여명이 관내 일원을 돌아보는 고흥방문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향우회는 방문 첫날 송기근 군수를 만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연형 고문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고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서서 힘이 되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종연 기자